시민 숙원 핵심사업 하나둘씩 가시화… 도시 전반에 '활력'

익산시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더 크고 강한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높아진 지역 위상과 더불어 시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면서 도시 전반에 활력이 돌고 있다. 정치·행정·경제 전 분야에서 뚜렷한 전환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익산시. 중앙정치권과의 유기적 연결, 핵심 인프라의 실현, 민생경제의 회복 징후, 미래형 도시계획의 재가동까지 그야말로 '익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에 기대감이 쏠린다.

코스트코코리아와 협약

코스트코 유치 브리핑

▲코스트코 익산점 계약 마무리… 진입도로 공사 본격화

우선 시민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코스트코 익산점 유치가 최근 계약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입점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하반기부터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본격 착수될 예정으로, 익산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비 편의 증진과 상권 재편이 기대된다.

코스트코는 단순한 대형 유통시설을 넘어, 연관된 고용 창출과 지역 소비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진입도로 개설로 도심 교통 체계도 함께 정비되며 지역 내외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 고구마, 전국 입맛 사로잡다…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대히트

익산 농산물도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지역 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0일 맥도날드에서 출시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머핀'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누적 판매량 50만 개를 돌파했다.

이번 제품은 익산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활용해 개발된 한정 메뉴로,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출시되며 익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중에게 직접 체험하게 한 전국적 마케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단위 유통 채널을 통해 지역 농산물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연결된 구조는 익산 농업의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이기도 하다.

시는 앞으로도 익산 고구마를 비롯한 지역 대표 농산물이 식품산업과 외식 분야로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철도 '28년 만의 전환점'… 대광법 통과로 기반 마련

최근 1997년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대광법)'이 28년 만에 개정되면서 익산이 포함된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의 교통망 논의에서 소외됐던 전북권역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철도망 계획의 공식 반영도 기대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섰다.

익산시는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 사업의 전략 거점 도시다.

광역환승체계 조성과 함께 도심 내 통합 교통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 복원… 민생경제에 다시 숨 불어넣어

한때 정부 예산 삭감으로 축소 위기에 놓였던 익산형 지역화폐 '다이로움' 사업도 최근 예산 복원을 통해 다시 궤도에 올랐다.

민선 6기부터 이어온 익산시의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상징인 다이로움은 골목상권의 핵심 소비 수단으로, 그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 생활 혜택을 제공해왔다.

예산 확보로 발행 규모 확대, 할인 혜택 유지, 온라인 연계 사업 등도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물가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도 탄력… 공개모집 본격화

수년간 경기 침체와 건설시장 불안정으로 지체됐던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최근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들어가 본격 추진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익산 도심 공간구조를 수변 중심으로 재편하고, 정주환경·관광·친수 기능을 복합화한 미래형 도시공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사업 여건을 차근차근 조성해 왔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선순환과 도시 활력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요직에 선 중진의원들… 익산의 국정 존재감 '뚜렷'

최근 익산을 지역구로 둔 3·4선 중진 국회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보직에 잇달아 배치되며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그간 지역 현안 해결에 오랜 숙원이었던 입법·예산 직통 창구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익산시의 시급한 현안이 국회와 정부에 신속히 전달되고, 실질적 재정 반영과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이춘석 의원(익산갑·4선)은 식품박물관 설립과 운영 근거가 담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3선)도 "예산으로 홀대받고 서러움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최근 추경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부여 구간 보상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익산의 발언권이 분명히 커질 것"이라며 "정치적 여건이 익산에 더 큰 기회를 주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코스트코 익산점 유치 계약 마쳐… 입점 가시권

맥도날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대히트'

광역전철망 구축 '청신호' 익산 다이로움, 다시 궤도에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 '탄력'

익산 지역구 중진 국회의원 법사위원장 등 핵심 보직에

익산역

익산 다이로움 홍보